

## 대학생이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김 영 혜\* · 김 순 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일생 중 대학생활은 성인기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대학생은 학업을 지속하면서 장래 취업과 결혼 및 육아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은 자신을 존중하면서 생활을 잘 조절하여 장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으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격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에 대해 잘 대처하여 적응력이 높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여 우울하게 된다(Avison & McAlpine, 1992; Brown & Gallagher, 1992; Brown & Mankowski, 1993). 한편 O'Malley & Bachman(김영이, 1994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데 13세부터 23세 사이에 증가하는 것

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연령 대에 있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생은 가까운 장래에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여 자녀 양육을 책임질 부모가 될 사람이므로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영향을 많이 주었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해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전통적으로 볼 때 자녀양육은 거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왔다. 최근에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핵가족이 증가하여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비중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부터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녀양육이 어머니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에게서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주체인 아동 자신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행동과 아동의 지각 사이에는 거의 상관이 없으므로 아동을 통한 어머니의 행동평가가 아동의 지각과 더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강원관광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강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이숙, 1988; Gecas & Schwalb, 1986).

한편 최근까지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이나 대학생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김연수, 1998; 이선호, 1999; 이은영, 탁영란, 2001; 이종은, 박선남, 박호란, 2001; 장희정, 신윤희, 2002; 최은정, 1998)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김현주, 1998; 박귀화, 2001; 박은주, 2001; 손옥경, 2001; 이신영, 1998; 이자형, 1996; 이필애, 2000; 심정하, 1997)이 다수 있었으나, 이 연구들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스트레스반응, 우울,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사회적 능력, 문제해결능력,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및 자가간호역량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었거나 초, 중, 고등학생의 어머니 양육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이(1994)의 연구가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적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무의식적으로 답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대학생이 어떻게 지각하는지 조사해봄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부모됨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상자가 인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Samuel, 1977),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김영이(199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양육행동 :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자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권태명, 1996), 본 연구에서는 박성연, 이숙(1990)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김영이(1994)가 자녀가 지각한 문항들로 수정한 것을 본 연구자가 대학생에게 질문하기에 적절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문헌 고찰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 경향으로서 자아개념의 영역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Coopersmiths, 1967; Taft, 1985). 즉 자아존중감이란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기초적 자아존중감과 기능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는데, 기초적 자아존중감은 인생 초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토대에서 형성

된다. 기능적 자아존중감은 인생 후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계속되는 평가를 통해 발전하므로 (Cronch, 1983), 나이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증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건강상태를 좋게 하여 일상생활 활동 능력과 자가간호 역량을 증진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정선, 1998; 신혜숙, 2001; 장희정, 신윤희, 2002). 또한 성기월(1997)은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으며, 최은정(1998)은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 반응 양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험생의 스트레스 반응양상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영과 탁영란(2001)은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된 결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Pender, Hall, Rayens & Beebe(2000)는 18-24세의 여대생 2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종은 등(2001)은 서울시 소재 남자 인문계 고등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기능 중 정서적 반응, 역할인식, 정서적지지 등이 좋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선호(1999)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추고 있어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반응을 선택하여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인 적응을 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업성취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생활만족도 등과 중요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최근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청소년 범죄나 폭력은 이미 그 수위가 극에 달하여 사회적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자기 부모가 싫어서 가출하거나 마약에 심취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양육에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소년의 폭력이나 비행문제들은 모두 영유아기의 양육 문제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한경자, 2000).

모아관계는 생의 초기부터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모아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표출된다.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서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보살핌은 아동이 발달선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장애들을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켜 심각한 스트레스나 충격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경자, 2001). 박귀화(2001)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이 개방적, 친화적인 성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한 반면 어머니의 비밀관

적, 거부적, 태만적, 과통제적, 과잉 보호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이 신경증적인 성격을 형성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종일과 남정현(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가정불화가 가족의 기능불능을 초래하여 자녀가 정신분열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여 애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신영(1998)과 McFadyen-Ketchum 등 (1996)은 6-10세 아동 어머니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강압적, 적의적,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유치원 생활 초기에 아동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및 과잉행동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600명을 대상으로 한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는 애정이 부족하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심한 자책과 의존, 주의력과 자제력 부족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함을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석진(1999), 김현주(1998), 이필애(2000), 전재천(199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동료를 소외, 무시, 놀림, 강탈, 구타하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김영이(1994), 심선보(2000), 최은숙(1999), Olweus (199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지만 권위주의적인 통제나 수용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자극하여 동료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성장과정상 표출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어머니는 아동이 사회화 과정을 잘 익혀서 자신의 재능과 창조적인 흥미를 개발할 수 있

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일을 완성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의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핵가족화의 증대로 인하여 대학생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하거나 모방하면서 성장해왔고 장래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 시기에 자신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 및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과 2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93명이었다.

####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된 대학의 지도교수께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각

지도교수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350부였으나 29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5.14%) 불완전한 응답을 한 5부를 제외한 293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 4. 연구도구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김영이(1994)가 번안한 도구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의 범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합산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영이(1994)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alpha = .79$  이었으며, 본 연구결과  $\alpha = .85$  이었다.

##### 2)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김영이(1994)가 자녀가 지각한 문항들로 수정하여 작성한 51문항의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대학생에게 적절한 25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가가 낮거나 응답결과에서 분산도가 낮은 3개의 문항을 제외시켜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으로는 합리적 지도(아동을 돕거나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용납이 안되고,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행동) 7문항, 애정(아동을 존중, 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행동) 6문항, 권위주의적 통제(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협박이나 별도로 강요하는 행동) 3문항, 과보호(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행동) 1문항, 성취(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행동) 3문항, 적극적 참여(아동의 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1문항, 일관성 있는 규제(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행동) 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내용 및 구성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과 교수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의 범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합산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영이(1994)의 연구에서는  $\alpha = .77$  이었으며 본 연구결과  $\alpha = .92$  이었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도는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비교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는 74.7%가 여대생이었으며 형제 수는 1-2명인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형제 순위는 첫째이거나 둘째인 경우가 각각 37.2%로 같은 비율이었다. 형제와의 연령차는 2년 이하인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

가 58.0%,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42.0%이었다. 대상자의 47.4%에서 가족의 월 평균수입이 101만원-200만원이었고, 92.8%에서 부친이 생존해 계셨다. 부친이 생존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부친의 사망시기는 대상자가 청소년기 이상인 경우가 85.7%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 농상업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직(27.0%), 사무직(22.5%)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영 농상업이 21.8%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이었다(50.2%, 44.0%).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3)

특 성	구 분	실 수	%
성별	남	74	25.3
	여	219	74.7
형제 수	1-2명	143	48.8
	3-4명	127	43.3
	5명 이상	23	7.8
형제 순위	첫째	109	37.2
	둘째	109	37.2
	셋째	43	14.7
	넷째 이상	32	10.9
형제와의 연령 차	0-2년	173	59.0
	3-4년	93	31.7
	5-6년	20	6.8
	7년 이상	7	2.4
거주 지역	대도시(직할시, 광역시)	123	42.0
	중·소도시(시)	170	58.0
월 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32	10.9
	101만원-200만원	139	47.4
	201만원-300만원	70	23.9
	301만원 이상	36	12.3
	일정하지 않음	10	3.4
부친의 생존여부	생존	272	92.8
	사망	21	7.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N=293)

특 성	구 분	실 수	%
부친 사망시 대상자의 연령	학령기 이하	3	14.3
	청소년기 이상	18	85.7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13	4.4
	사무직	66	22.5
	자영 농상업	103	35.2
	기술직	79	27.0
	무직	11	3.8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8	2.7
	사무직	25	8.5
	자영 농상업	64	21.8
	기술직	37	12.6
	주부	158	53.9
아버지의 학력	초등졸 이하	41	14.0
	중졸	53	18.1
	고졸	147	50.2
	대졸 이상	43	14.7
어머니의 학력	초등졸 이하	58	19.8
	중졸	76	25.9
	고졸	129	44.0
	대졸 이상	21	7.2

## 2.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29.6점, 평점 2.96(표준편차 0.43)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 내용별로 볼 때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21(표준편차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 3.15(표준편차 0.70),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은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 3.11(표준편차 0.56)의 순이었다.

〈표 2〉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

(N=293)

내 용	평점±표준편차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1± .57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90± .60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3.11± .56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 #	3.15± .70
나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	2.85± .72
나 자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한다	3.03± .57
대체로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2.85± .63
나는 스스로를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다	3.01± .66
가끔은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느낄 때가 있다 #	2.58± .74
나는 내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	2.87± .76
총 평균 29.6/40.0점 (73.9/100.0점)	2.96± .43

<주> # 역 coding

### 3. 대상자가 인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정도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82.7점, 평점 3.76(표준편차 0.55)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부 개념인 7개 요인의 평점은 성취가 4.03(표준편차 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정 3.86(표준편차 0.66), 합리적 지도 3.79(표준편차 0.71), 적극적 참여 3.60(표준편차 0.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가 인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정도  
(N=293)

내 용	평점±표준편차
합리적 지도	3.79± .71
애정	3.86± .66
권위주의적 통제	3.49± .71
과보호	3.28±1.10
성취	4.03± .71
적극적 참여	3.60± .94
일관성 있는 규제	3.59± .88
총 평균 82.7/110.0점 (75.0/100.0점)	3.76± .55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양육행동 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이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표 4>와 같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형제 수가 5명 이상일 때가 5명 미만일 때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형제순위가 첫째인 경우와 형제와의 연령차가 5-6년인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의 월 평균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친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와 돌아가신 시기가 청소년기 이상인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여학생의 경우에 83.49점으로 남학생의 경우인 80.2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6).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양육행동이 85.14점으로

로 증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84.0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41$ ). 그 외, 형제 순위가 둘째인 경우, 형제와의 연령차가 5-6년인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친이 생존해 계신 경우, 부친의 사망시기가 대상자가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증졸인 경우에 대상자가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행동은  $r=0.257(p=0.000)$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표 5>.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부개념인 7개 요인 각각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합리적 지도와  $r=0.174(p=0.003)$ , 애정과  $r=0.248(p=0.000)$ , 성취와  $r=0.183(p=0.002)$ , 적극적 참여와  $r=0.218(p=0.000)$ , 일관성 있는 규제와  $r=0.207(0.000)$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r=0.152(p=0.009)$ , 과보호와  $r=0.119(p=0.041)$ 의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5.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이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 (N=293)

특성	구분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실수	M±SD	T or F	p값	실수	M±SD	T or F	p값
성별	남	74	29.62±4.62	.152	.879	74	80.27±12.94	-2.005	.046*
	여	219	29.53±4.14			219	83.49±11.61		
형제 수	1-2명	143	29.38±4.28	1.082	.340	143	83.08±12.45	.633	.532
	3-4명	127	29.54±4.26			127	82.70±11.41		
	5명 이상	23	30.78±4.11			23	80.04±12.80		
형제 순위	첫째	109	29.30±4.30	.324	.808	109	81.63±11.74	1.826	.143
	둘째	109	29.75±4.33			109	84.69±12.62		
	셋째	43	29.40±3.97			43	82.16±10.21		
	넷째 이상	32	29.97±4.35			32	80.09±12.60		
형제와의 연령 차	0-2년	173	29.49±4.10	.984	.401	173	81.96±11.80	.525	.665
	3-4년	93	29.44±4.66			93	83.71±12.78		
	5-6년	20	31.05±3.59			20	84.10±11.71		
	7년 이상	7	28.57±4.24			7	82.71± 7.87		
거주 지역	대도시(직할시,광역시)	123	30.03±4.04	1.633	.103	123	81.11±11.52	-1.905	.058
	중·소도시(시)	170	29.21±4.39			170	83.81±12.28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32	28.66±4.72	1.490	.193	32	82.25±13.07	1.579	.166
	101 - 200만원	139	29.29±3.89			139	81.65±12.04		
	201 - 300만원	70	30.01±4.52			70	84.70±11.73		
	301만원 이상	36	30.42±4.40			36	82.72±12.37		
	일정하지 않음	10	31.20±4.76			10	88.60± 7.82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 〈계속〉 (N=293)

특성	구분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실수	M±SD	T or F	p값	실수	M±SD	T or F	p값
부친의 생존	생존	272	29.56±4.27			272	82.71±11.95		
	사망	21	29.57±4.15	- .017	.987	21	82.24±13.25	.174	.862
대상자의 연령	부친사망시 확령기 이하	3	27.33±6.66			3	76.33±13.32		
	청소년기 이상	18	29.94±3.75	-1.008	.326	18	83.22±13.36	- .827	.418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13	29.69±3.04			13	79.54±10.87		
	사무직	66	30.08±4.52			66	84.77±12.67		
	자영 농상업	103	29.65±3.76	1.420	.217	103	80.16±11.05	1.979	.082
	기술직	79	29.51±4.67			79	84.58±11.75		
	무직	11	26.45±4.76			11	84.64±14.82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8	29.00±6.55			8	86.13±15.32		
	사무직	25	29.80±4.38			25	87.12±10.90		
	자영 농상업	64	29.72±3.91	.471	.798	64	80.41±12.38	1.538	.178
	기술직	37	28.92±5.08			37	83.43±11.25		
	주부	158	29.66±4.07			158	82.63±11.94		
아버지의 학력	초등졸 이하	41	29.41±4.15			41	78.59±11.46		
	중졸	53	28.83±4.47			53	85.13± 9.95		
	고졸	147	29.82±4.05	.639	.635	147	82.37±11.69	2.184	.071
	대졸 이상	43	29.49±4.74			43	83.70±13.79		
어머니의 학력	초등졸 이하	58	28.59±4.39			58	78.60±11.88		
	중졸	76	30.13±4.00			76	84.07±11.03		
	고졸	129	29.88±4.05	2.304	.059	129	82.99±11.48	2.519	.041*
	대졸 이상	21	27.81±5.23			21	85.14±14.29		

\* P< 0.05

## V. 논 의

〈표 5〉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N=293)

	자아존중감	
합리적 지도	r= 0.174	p= .003
애정	r= 0.248	p= .000
권위주의적 통제	r= 0.152	p= .009
과보호	r= 0.119	p= .041
성취	r= 0.183	p= .002
적극적 참여	r= 0.218	p= .000
일관성 있는 규제	r= 0.207	p= .000
어머니의 양육행동(전체)	r= 0.257	p= .000

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최고 평점 4점에서 평점 2.96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은영과 탁영란(2001), 이종은 등(2001), 장희정과 신윤희(2002) 및 최은정(1998)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O'Malley & Bachman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이미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상도 최고 평점 4점에서 평점 3.76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정하(1997)의 영아모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최고평점 5점에서 평균평점 3.50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태도를 나타낸 결과보다 더 높은 점수였다.

하부영역별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자기가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역산함)', '나는 다른 사람만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의 순이었다. '가끔은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느낄 때가 있다(역산함)' 영역이 제일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희정과 신윤희(2002)의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연구결과, 성공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이는 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자기가치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낮은 취업문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갈등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엿볼 수 있다. 대상자가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성취영역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애정, 합리적 지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보호 영역이 가장 덜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신영(1998), 이필애(2000)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어머니와는 달리 대학생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성인기에의 성공을 위한 첫 단계로 최고의 학벌인 대학을 선택하여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부모역할로 여기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사랑 내지는 학구열로 인하여 성취영역

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어머니가 남자 대학생의 어머니보다 양육행동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귀화(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어머니가 자율성과 정연성 영역에서 양육행동이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심선보(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권위주의적 통제가 유의미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모에 대한 김영혜, 이화자, 김순주(2001)의 연구와 심정하(1997)의 연구, 학령기 아동 어머니에 관한 김현주(1998)의 연구, 초등학교 어머니에 관한 전재천(1999)의 연구결과 성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아동 연령 분포상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인지에 대한 규명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양육행동이 더 긍정적이었다. Zahr(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약 11년 이상 교육받은 경우에 양육행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심정하(1997)와 이자형(1996)의 연구결과 영아모와 초산모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머니의 성장과정상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부영역간에 순상관계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이(1994)의 연구결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 합리적 지도,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권위주의적 통제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의 아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 하부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양상을 파악해봄으로써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올바른 부모됨의 지침을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태백시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과 2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가 인지한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도는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9.6점(범위는 10~40점)이었다.
2.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는 평균 82.7점(범위는 22~110점)이었다.  
하부개념의 평균평점은 최고 5점에서 성취 4.03점, 애정 3.86점, 합리적 지도 3.79점, 적극적 참여 3.60점, 일관성 있는 규제 3.59점,

권위주의적 통제 3.49점 및 과보호 3.28점이었다.

3.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대학생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부영역간에는 순상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 때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연령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외의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권태명 (1996).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김경숙 (1993).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태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진 (199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요인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1998). 성취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이 (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 이화자, 김순구 (2001).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관

- 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1-15.
- 김정선 (1998). 가정노인과 양로원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148-158.
- 김현주 (1998).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능력·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귀화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5요인 성격구조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인기도 및 성별에 따른 유아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기월 (1997). 노인의 인지기능, 자아존중감과 우울정도. 대한간호학회지, 27(1), 36-48.
- 손옥경 (2001). 정신역동적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수용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숙 (200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6), 1119-1128.
- 심선보 (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하 (1997). 영아모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7(2), 454-464.
- 이선호 (1999). 자존감과 사회적지지 지각이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199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특성 : 고과잉행동 아동, 저과잉행동아동, 정상아동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탁영란 (2001). 청소년의 성차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아동간호학회지, 7(4), 474-482.
- 이자형 (1996). 산욕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1.
- 이중은, 박선남, 박호란 (2001). 일도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7(1), 74-84.
- 이종일, 남정현 (1997).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신경정신의학, 36(1), 55-71.
- 이필애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정, 신윤희 (2002).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2), 186-195.
- 전재천 (1999).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1998).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반응양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자 (2000). 아동양육과 간호역할.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3(1), 95-101.
- 한경자 (2001). 영유아 건강과 보육, 간호역할.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1), 98-102.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rown, J. D. & Gallagher, F. M. (1992). Coming

- 
- to terms with failure : private enhancement and public self-effac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3-22.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self-evaluation ;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21-430.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Co., 19-44.
- Cronch, M. A. (1983). Enhancement of self-esteem through the life span. Family and Community Health, 6(2), 11-28.
- Gecas, V. & Schwalb,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Olweus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4.
- Pender, A. R., Hall, L. A., Rayens, M. K. & Beebe, L. (2000). Negative thinking mediates the effect of self-esteem on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women. Nursing Research, 49(4), 201-207.
- Samuel, S. C. (1977). Inhancing self-concept in early childhood.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33-36.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d Nursing Science, 8(1), 77-84.
- Zahr, L. K (1993). The confidence of Latina mothers in the care of their low birth weight infants. Res Nurs Health, 16(5), 335-342.

**ABSTRACT**

Key Words : Self-esteem, Caretaking behaviors

## A Study on perceived Self-esteem and maternal Careta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im, Young Hae\* · Kim, Soon G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erceived self-esteem and maternal careta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which maternal caretaking behaviors and self-esteem were included.

This study chose 293 students studying at universities and a college in Busan and a college in Taebaek as su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self-esteem was 29.6(Range=10-40).
2. The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maternal caretaking behaviors was 82.7(Range=22-110). The mean scores of subsets on the maternal caretaking behaviors were as follows ; achievement(4.03), affection(3.86), rational direction(3.79), active participation

(3.60), consistent restriction(3.59), authoritative control(3.49) and over-protection(3.28).

3. The level of maternal caretaking behavior revealed som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tudents' gender and their mothers' academic career.
4. The level of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maternal caretaking behaviors in subjects.

In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mothers' positive pattern of maternal caretaking behavio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udents' higher self-esteem.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